

배우 김윤서,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초청

윤재호 감독 영화 '남겨진'으로 관객들과 소통

배우 김윤서가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부문에 공식 초청돼 관객들과 만난다. 김윤서의 초청작은 윤재호 감독의 영화 '남겨진'이다. '남겨진'은 깊이 있는 감정선과 섬세한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김윤서는 극의 중심에서 몰입도 높은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윤서는 29일 개막식 참석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과 5월 2일 진행되는 GV(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해 관객들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다. 작품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와 촬영 비하인드를 전하며 뜻깊은 시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윤서는 김지운 감독의 영화 '악마를 보았다'로 데뷔한 이후,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꾸준한 연기 활동을 이어왔다. 다양한 작품에서 폭넓은 캐릭터를 소화하며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그는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안정적인 연기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자신만의 존재감을 구축해왔다.

최근에는 활동 영역을 넓히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김윤서가 이번 영화제를 통해 선보일 새로운 모습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29일부터 전주 일대에서 개최된다.



/김재훈 기자 배우 김윤서

'남원 키즈 나이트 페스타' 열린다

남원시, 어린이날 주간 맞아 5월 1~5일 피오리움 일원서 개최

남원시는 미디어아트 전시관 피오리움 일원에서 어린이날 주관을 맞아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키즈 나이트 페스타' '빛으로 노는 밤'이 열린다.

남원시와 우석대학교 RISE사업단이 남원 로코노미(Loconomy) 활성화를 일환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폐자원을 문화시설로 재생한 피오리움의 개관 1주년과 제96회 춘향제 기간에 맞춰 추진된다.

행사는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어린이 친화형 야간 체험'을 테마로 구성됐다. 피오리움 일원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잔디밭 야간 빛 놀이터'가 조성되며, 어린이들이 빛과 색, 움직임의 직접 체험하며 미디어

아트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운영된다.

특히 5월 1일, 2일, 5일에는 피오리움 외벽 프로젝션 미디어 라이트쇼와 레이저 특수효과가 어우러진 '키즈 동요 EDM 파티'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빛 조형물을 활용한 '빛블록 놀이', 블랙라이트 조명 아래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나서 웰', 야광 팔찌 만들기 등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오감 만족형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야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마술쇼, 버블쇼, 솜사탕 쇼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퍼포먼스가 진행돼 가족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이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피오리움 공식 SNS(@forum_official) 또는 전화(063-620-556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덕진공원에서 만나는 전주시립국악단 야외공연 '궁원'

전주시립국악단(예술감독 겸 지휘자 심상욱)은 오는 5월 9일 오후 5시와 10일 오전 11시 총 2회에 걸쳐 덕진공원 특설무대에서 전통음악 시리즈 '궁원'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자연과 어우러진 공간에서 전통 예술의 멋과 흥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전주시립국악단의 야외공연으로,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무대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국악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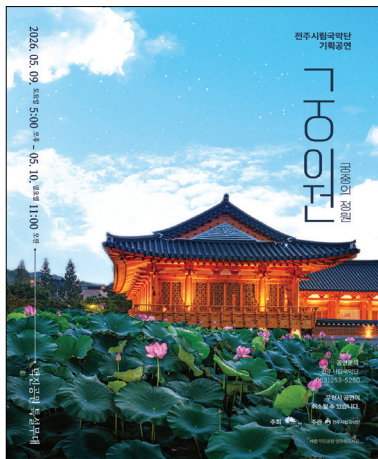
먼저 첫날 공연은 △관현악 합주 '반파정식'으로 문을 연다. 이어 △정재무용 '무고' △현악합주 '천년만세' △여창가곡 '우락' △가야금병창 '고고전변' 등 전통 성악과 기악, 무용

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또한 △거문고 제주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사물놀이 '삼도사물놀이' 등 역동적인 연희 무대를 통해 전통예술 특유의 흥과 에너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둘째 날 공연에서는 △관현악 합주 '수제천'을 비롯해 △현악합주 '현악도드리' △한국무용 '입춤' △여창가곡 '환계락' △가야금 병창 '신사철가' △대금 제주 '서용석류 대금산조' △한국무용 '태평무' 등 전통예술의 깊이와 화려함을 아우르는 무대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한편 이번 공연은 별도의 입장료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8부 '굿패와 사랑' (4)

왜 소리에 정성이 없냐!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집에서는 부모 잃은 아이들을 돌보라 사람들 부탁으로 셋집을 하러 다니라 입암택은 몹시 바쁜 나날을 보냈는데 하루는 부안지에서 경찰이 찾아와 집안을 둘러보면서 여기저기를 살펴보고는 돌아갔다. 다음날 경찰은 다시 찾아와 명회를 불러내더니 차에 태워 지서로 데려갔다. "네가 박명희지? 빨치산과 함께 다니는 걸 봤다는 사람들이 있어? 너 빨치산이지?"

분명하게 아니라고 명회는 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빨치산으로 몰려 죽을 수도 있다.

"따라 다닌 게 아니라 끌려다니는 거예요. 저는 앞을 잘 못 봐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신에서 살면서 빨치산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끌려 다니고 앞을 잘 못 보는데 어떻게 산에서 내려온 거지?" "앞을 잘 못 봐서 데리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냥 풀어진 거예요."

"안 되겠구만, 본서로 넘겨서 확인을 해야겠어."

명회는 수갑이 채워진 채 고참경찰사로 인계되었는데 유치장에 들어가려다가 우연히 박창수가 잡혀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명회는 하루를 유치장에 있었고 다음날 경찰은 특별한 설명 없이 명회를 풀어줬다. 명회의 주장대로 빨치산과 같이 활동한 게 아니라 잡혀서 끌려 다녔다는 게 소명되었는데, 박창수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 짐작했다.

명회는 박창수의 얼굴은 보지 못했고 경찰서 밖에서 명회를 기다리고 있던 외숙부와 함께 외가로 돌아왔다.

시일이 흐르면서 명회의 눈은 더 나빠졌는데 거의 앞을 못 볼 정도에 이르렀다.

"오늘부터는 너에게 독경하는 법을 가르칠 테니 열심히 배우거라. 앉아서 하는 곳도 무당굿이다."

소경무당은 법사라 칭하는데, 오래전부터 주로 남자 맹인이 해왔던 무용으로 간소한 곳을 진행해왔고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

맹인무당은 혼자서 징이나 북, 장구를 치며 무경이나 무기를 부르며 굿을 진행한다. 몸짓이 아닌 목소리로 하는 굿이라 경을 읊거나 노래를 부르는 실력에 따라 무당의 점수가 매겨졌다.

입암택은 자신이 알고 있는 무가와 무경 등을 모두 학습하도록 구전했으며, 음이 다르거나 힘이 없으면 엄하게 꾸짖었다.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왜 소리에 정성이 없냐! 네가 네 어머니와 아버지의 넋을 위로해주고 동생들의 혼을 달래주려 무당이 되겠다고 이런 정도로 해서 안 된다! 다른 혼령을 위로하려거든 너의 혼령이 다른 혼령을 안아줄 수 있는 넓은 품과 힘이 있어야 하고 애절한 정성이 담겨 있어야 다른 혼령이 감동하고 위로 받을 것이야! 알았냐!"

눈물이 솟 나오게 외조모는 명회를 혼냈다.

입암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가와 무경을 모두 외우게 한 다음 그걸 낭송하거나 부르게 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를치게 나무랐다.

어느 정도 명회가 입암택이 가르친 걸 마스트하자 실력 출중한 법사에게 명회를 데려다 그 법사에게 무경을 배우도록 주선해줬다.

명회는 홀로 장구나 징, 북을 치며 낭송조로 통절하게 노래를 부르거나 무경을 외웠는데, 소리에 고저를 넣어 애절하고 구성진 독경의 맛을 내는 화초경의 참법을 배웠고, 귀신을 가뉘서 재판하는 사실로 배우기 힘들다는 신장법이 무경도 습득했다.

게다가 장자풀이와 상당한 수준이 되어야 할 수 있고 법사라면 반드시 익혀야 하는 칠성풀이까지 습득했다.

명회의 나이는 어느덧 20대 중반에 들어서 있었다. 외조모나 외숙모가 굿을 나갈 때면 명회도 따라가서 앉은곳으로 무경과 무가로 굿을 진행했는데 지켜본 사람들이 다 명회의 굿에 신령함이 깃들어 있다고 칭송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